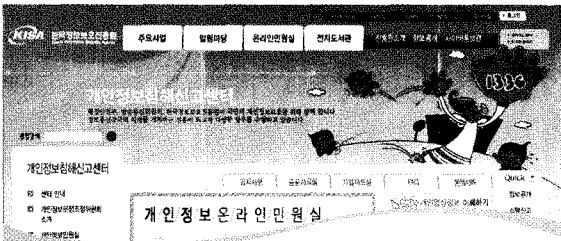


ON THE ROAD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신속 해결

: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ISA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내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지난 3월 2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기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 신속대응팀은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 발생 시 관계 공무원과 현장점검부터 점검 후 개선사항 이행 모니터링 단계까지 세부 점검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해 대응하게 된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침해사건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KISA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전화 1336번)에 신고할 수 있다.

▶ NateOn 메신저 이용시 악성코드 자동 탐지

: KISA·SK커뮤니케이션즈 MOU 체결



KISA가 지난 3월 11일 SK커뮤니케이션즈와 그린 인터넷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문화 정착 및 상생,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침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트온(NateOn)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KISA가 개발한 악성봇 확인 서비스를 연동시켜 사용자들에게 악성코드 탐지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변종이 많은 악성코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KISA와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이명수 본부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과 KISA의 침해사고 대응기술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열기 고조

: 4개 기업 ISMS 인증 획득

최근 KISA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대한 기업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KISA가 ‘평화이즈의 IDC 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콜센터 및 홈페이지 서비스’, ‘모빌리언스의 유무선 통합결제 서비스 운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원격교육 시스템 운영’ 등 4건의 ISMS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이들 4개 기업 관계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향후 신규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증심사를 진행한 KISA 원유재 단장은 “ISMS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향후 인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KISA는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순천향대학교 염홍열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 유창한 한국말에 속지 말자

: 이동통신통합관리센터 사칭한 신종 전화금융사기 출현



KISA가 최근 ‘이동통신통합 관리센터’라는 존재하지 않은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통합관리센터라고 사칭해 다양한 수법으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기수법으로는 휴대전화요금 할인, 우수고객에게 무료 통화권 증정, 이벤트를 통한 콘도·펜션 회원권 제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비스팀 정연수 팀장은 “신종 전화금융사기는 기존의 수법과 달리,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상담원이 1:1로 안내하고, 통화 품질도 양호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일단 주의를 기울이고 일체 대응하지 말거나 조목조목 되물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 the Road

▶ KISA, 2009년 대학정보보호 지원동아리 선정

: 31개 대학교 35개 정보보호 동아리 선정돼

KISA가 '2009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35개 동아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동아리 선정결과, 지난 2008년에 참여한 동아리 중 23개 동아리가 올해에도 재선정됐으며, 12개 동아리가 신규로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강원권이 16개 동아리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에서 8개, 충청권에서 7개, 호남권에서 4개 동아리가 각각 선정됐다.

지난 2월 26일 증서수여식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2009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는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맞춤형 교육 실시, 해외컨퍼런스 참가 지원, 산·학 협력 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KISA는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들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전산실 PC 등을 점검하는 봉사 활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IPTV 개시, 통신요금인하,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등

: 방통위 출범 1년의 추진 성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와 2년차 정책방향을 정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6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방통위는 출범 당시, IPTV, 디지털전환, 통신요금인하, 미디어 규제개혁, 개인 정보보호 등 수년동안 이해 관계 대립으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됐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당면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펼쳤다. 특히,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포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08년 7월에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출범 1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6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방통위는 출범 당시, IPTV, 디지털전환, 통신요금인하, 미디어 규제개혁, 개인 정보보호 등 수년동안 이해 관계 대립으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됐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당면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펼쳤다. 특히,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포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08년 7월에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 한국, 정보통신발전지수 세계 2위

: 정보통신 강국로서의 위상 재확인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발전지수에서 전세계 154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 3월 2일 발표한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통신발전지수(ICT-Development Index)의 결과.

정보통신발전지수는 ICT의 접근성, 이용,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총 11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이용해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ITU에서는 디지털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I-OI)를 지난 2007년까지 발표

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는 관련 전문가들과 ITU 전체 회원국들의 논의를 통해 이번에 단일 지수를 확정·발표한 것이다. 방통위는 그간 바람직한 정보화지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지수에서는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덴마크, 네덜란드가 3, 4위에 올라, 유럽국가들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국은 10위, 일본은 12위, 미국은 17위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인터넷 대역폭 지표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위, 무선초고속 가입자수 2위 등 인터넷 이용 측면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아 종합순위 2위에 랭크됐다.

아울러, 동 지수를 활용해 2002년과 2007년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도 함께 발표됐는데, 스웨덴은 2002년과 2007년에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3위에서 2007년 2위로 1단계 상승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수준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은 “정보통신 개발의 촉진과 세계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